

AT TROAS

⁽⁷⁾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we were gathered together to break bread, Paul began talking to them, intending to leave the next day, and he prolonged his message until midnight. ⁽⁸⁾There were many lamps in the upper room where we were gathered together. ⁽⁹⁾And there was a young man named Eutychus sitting on the window sill, sinking into a deep sleep; and as Paul kept on talking, he was overcome by sleep and fell down from the third floor and was picked up dead. ⁽¹⁰⁾But Paul went down and fell upon him, and after embracing him, he said, "Do not be troubled, for his life is in him." ⁽¹¹⁾When he had gone back up and had broken the bread and eaten, he talked with them a long while until daybreak, and then left.

⁽¹²⁾They took away the boy alive, and were greatly comforted.

(Acts 20:7~12)

During Paul's third missionary journey he visited the city of Troas. The Bible tells us,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we were gathered together to break bread, Paul began talking to them, intending to leave the next day, and he prolonged his message until midnight." (v. 7) The first day of the week was a Sunday, the day after the Sabbath Day, which was on Saturday. The new Christian church worshipped and broke bread for Holy Communion on Sundays. This became the regular day of worship for Christians in remembrance of Christ's resurrection on Sunday. This particular Sunday was going to be Paul's last day at Troas. The believers there were very sad and they did not want his preaching to end. So, Paul preached to them way into the night. One young man, who obviously liked hearing Paul's preaching but was not that serious about the Lord's Supper, dozed off and fell from a third story window where he had been sitting. He died on impact. Paul held this Sunday worship service with the Lord's Supper, a special memorial of Jesus, earnestly and sincerely. Everyone took it seriously except this one young man, "And there was a young man named Eutychus sitting on the window sill, sinking into a deep sleep; and as Paul kept on talking, he was overcome by sleep and fell down from the third floor and was picked up dead." (v. 9) This young man wasn't actively interested or involved with Paul's sermon. He wasn't sitting in a proper seat. When we take Holy Communion, we have to have one heart and we have to remember who our Lord Jesus Christ is.

We must remember that Jesus Christ is our Scriptural Savior. He came to fulfill the Scriptures,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n. 1:14) Jesus fulfilled the Scripture through His birth, life, and death. If we do not seriously look at Jesus Christ in this way, we will have trouble. Paul says,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Cor. 15:3~4) The proclamation of

this message i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our church. Indeed, this ordinance of the church present is a picture of the gospel. Communion is the time to remember Jesus Christ's death. His sacrifice on the cross fulfilled Scripture and made possible our salvation.

We must remember that Jesus Christ is our Sorrowing Savior. Isaiah 53:3 says, "He was despised and forsaken of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li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 He was despised, and we did not esteem Him." Jesus was rejected by those He came to save. He was cursed and persecuted and even betrayed by one of His own disciples, Judas. Still today His sorrows continue as He intercedes on our behalf. His compassion did not end at the cross, but continues to this very day.

We must remember that Jesus Christ is our Suffering Savior. Isaiah 53:5 says,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Consider His suffering on the cross. The cross was no afterthought with God. Knowing the pain and suffering of the cross He came to save us. Honestly, who can truly understand such love? Jesus Christ endured the suffering of the cross so that we might escape the suffering of hell. Christ was our substitute. The Lord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Isaiah 53:6 says,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We deserve to die but Jesus took our place. He became sin for us so that we might be able to stand righteous before Him,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2Cor. 5:21)

My dear friend, have you made the message of Communion personal? Do you take Jesus seriously? Can you come to the Lord's Table right now with a sincere and earnest heart? Please let God's Word keep you alert and ready until Jesus Christ's return. Amen. 🙏

드로아에서

⁽⁷⁾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했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⁸⁾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⁹⁾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¹⁰⁾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¹¹⁾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¹²⁾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도행전 20:7~12)



김성관 목사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 들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했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7절)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다음날인 주일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정기적인 예배일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주일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신자들은 너무나 슬퍼하면서 바울의 설교가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중까지 계속 강론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3층 창문에서 앉아서 졸다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바울의 설교를 좋아했지만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특별히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써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주일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이 청년만은 예외였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9절) 이 청년은 바울의 설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도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한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예수님은 탄생과 생애, 죽음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이 선포야말로 교회 존립에 대한 확실한 근거입니다. 사실 현재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은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고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겪으신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슬픔을 겪으신 구세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3은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구원해주려고 온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했고 필박을 당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제자였던 유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여전히 슬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신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신 구세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5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께 예전에 없어 나중에 추가시킨 계획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누가 감히 진정으로 그 사랑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6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진실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만찬에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깨어 준비하십시오. 아멘.

수요부예배 메시지(2008. 10. 22.)

은밀한 곳

(시편 91:1~2)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공하시는 은밀한 곳에 거한다면 걱정은 없다. 죽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죽을지라도 말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십자가로 모인 사람들에게는 은총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던 한편의 강도에게 이 은총이 임했다. 사실 그 강도는 평생 남들에게 하지 못한 악인이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이적을 본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하였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라니 나를 기어오라소서”(눅 23:42)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눅 23:43)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내내 듣고 이적들을 보았던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정작 구원은 강도가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역사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참 신자들의 찬송과 간증은 이것이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시 91: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신자들은 핍박을 받는다. 이 세상에 피할 곳은 없다. 그럼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현시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담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셀라)”(시 46:1,7) 존경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지 말자. 수많은 벌서와 천대를 받으실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말자. 매 순간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자. (시 62:8)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십자가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피난처의 기둥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방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요니”(시 71:7) 무슨 걱정이냐 열려가 있었는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

주지 않다고 실망할 겨를이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는 참 신자들에게는 오직 찬송뿐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디!”

그는 나의 요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시 91:2) 주님이 제공하시는 피난처는 요새이다. 이 요새를 침략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힘은 없다. 현재 신자들은 영적 전쟁 중이다. 매 순간 악한 영들과 전투하고 있다. 사탄은 신자들의 약점을 집중 공격한다.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며 환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타협할 것을 요구한다. 이 유혹에 신자들은 쉽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 좁고 험한 길보다는 사탄이 제시하는 넓은 길이 매우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예수님은 이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탄과 그 줄게들이 쏘아대는 불화살 공격들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와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엢 6:16) 우리는 가장 안전한 요새 안에서 찬송할 것이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시 91:2)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사는 신자들에게 주님은 피난처이시며 요새이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엢 2:8~9) 기독교는 은총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철대로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의식자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건과 인격수양을 위해서 십자가 외에 것들에 관심을 쏟고 있다. 바르게 살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모든 주장들은 거짓이다. 유일한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롬 5:1) 우리가 의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믿음으로 간증하자. “주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은밀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뿐이다.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화의 생명이자 호로고다. 그곳이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 신자들의 피난처이며 요새이다.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가? 십자가 아래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의뢰하자. 그 순간 주님은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 환경을 초월한 진심어린 찬송과 참 믿음의 삶은 시작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으라.”(찬 539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42

*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시각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불신앙

(8:11~21)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관련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였다. 이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공부한 정통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른 것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따로 설명해 주시길 전가치 깨닫지 못했다. (막 4:11~13,34)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불신앙이 어떠한지 살펴보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사탄이 예언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관아의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막 10:2, 12:15)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계속 요구했다. (막 8:11)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막 8:12) 사실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이들은 놀라운 이적을 볼 때마다 믿기는 커녕 또 다른 모험하기를 찾을 뿐이었다. (막 3:22)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믿음을 이끌어내지만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보인 불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이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자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향하셨다. (막 8:13) 그때 제자들은 음식

으로 인해서 걱정하였다. (막 8:14)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막 8:15)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불신앙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신자들로부터 불필요한 근신과 경건에 빠지게 하여 십자가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누룩으로 비유하셨다. 작은 누룩일지라도 위험하다. (고전 5:6)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수군거렸다. (막 8:16)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막 8:17~18)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이 행한 모방이어서 칠명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막 8:19~20)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과 막힌 귀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막 8:21)라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신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불신앙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눅 23:8)처럼 우리도 나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줄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성경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냐 떡이 아니다. (막 6:52)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십자가를 붙들며,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종말은 매우 비참하게 될 것이다. (눅 18:8)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불신앙을 버리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자. (시 145:4)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들시 주여 함께 하소서.”(찬 447장) 아멘.

땅 끝까지

꽃보다 더 향기로운 영혼들

축복의 땅

허를 많은 죄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역지로 들어왔다. 그곳은 무슬림 지역이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아침 경건회를 통하여 우리 팀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경주를 입혀 주시어,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든듯히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건조한 땅에서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흩날렸지만 주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맑은 웃음을 보여 줄 때는 그 어떠한 꽃향기보다 더 향긋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씩씩하게 "예수 사랑하심은 ~" 찬송을 함께 부를 때는 내가 더 신이나 기뻐서 약한 영들이 뒤로 슬금슬금 도망치는 것 같았다.

내가 했던 격정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겨졌고, 이곳 건조한 땅에서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주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였다.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 3명이 우리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하며 도망갈 때 "우리를 저주하는 노래가 아닌가?" 잠시 생각하였다. 그들을 찾아 들어간 집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른들도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영접기도까지 하였다. 나는 한국어로 그들을 위해 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참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하고 건조한 땅, 어둠의 권세가 드리워진 땅이었지만 주님은 이런 곳을 택하시어 그 누군가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와 회개와 헌신으로 그들이 밝은 발자국마다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게 하였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을 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돌아왔다.

김인혁(집사, 7교구 4지역팀)

사역지의 날씨는 무척 더웠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쬘어 숨이 막혔습니다. 나무가 거의 없어 그늘을 만나기조차 어려운 구름과 평야 지대였습니다. 마을에도 가로수나 나무를 찾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2인 1조가 되어 축조전도를 중심으로 노방전도와 어린이 전도사역을 하였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전도를 하고, 장소를 옮겨가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맞아주었고, 전도지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영접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앞장 서 인도하시는 선교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팀원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팀을 인도하시는 선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히 전하는 적극적인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기간 내내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팀원 모두가 기억하였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의 기쁨을 맛보면서 선교에 임하였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감격하였습니다. 팀원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도 계셨지만 기도하면 소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선교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축복의 땅입니다. 선교를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왕성하여 온 나라에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경현(안수집사, 8교구 4지역팀)

성령의 단비

모임엔 선교 이야기인데 선교를 가본 적이 없던 나는 늘 부끄럼이 금금했다. "올해는 꼭 선교를 가자!" 일찍부터 CMTC 훈련을 받고 기도하며 준비를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나는 걱정스러웠다. "집사님, 어떻게 가요?" "글쎄, 성령님이 인도하시겠죠." 음식점을 정리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안 나가면 가게가 선교 떠나기 1주일 전에 계약이 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

우리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복음의 빛진 자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여 선교지에 다다르도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년 중 구름 없는 날이 거의 반인 선교국에 도착하자 촉촉한 비가 우리를 맞아 주었다. 성령의 단비를 주신 것이다.

첫 선교지에서 마음이 앞서는 바람에 집 안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땀벌에 서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 몸이 먼저 지쳤다. 그 때도 일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멈추고서, 우리의 어눌한 복음을 잘 들어주고,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그 마을들이 애뻤다. 집사님 영혼을 깨운 신하님께 이제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이 땅에 찬양이 넘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또 어느 마을에서는 처음엔 불교신자라며 거절하던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통해서 호의적으로 변했고, 찬양과 율동까지 따라하던 가정도 있었다. 만나는 영혼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야 할 영혼들을 여러 모양으로 예비하고 계셨다.

윤경희(집사, 4교구 5지역팀)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선교

선교를 가겠다는 결심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다. 내가 가겠다고 결심한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선교라 생각했다. 많은 분들이 다녀왔고, 선교를 다녀와야 중언회교 교인인 듯했다. 나는 공감할 수 있는 대화도 부족했고, 그래서 선교를 먼 발치에서 이방인처럼 바라보았다. 막상 가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선교훈련과 심사는 자기 부인과 절대적인 항복 없는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이 선교였다.

선교 파송 3개월 전에 팀이 구성되었다. 팀원 중의 대다수가 선교를 다녀온 분들이라 언어든 영성 이든 쉽게 진행될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만과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2차 영성심사 재심, 3차 언어심사 재심, 4차 종합심사까지 재심을 받았다.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했고, 출발하는 날까지 말들로 무장하였다. 2차 영성심사와 3차 언어심사에서 재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재심이 있었기에 회개할 수 있었고, 기도에도 더욱 힘을 주 수 있었다.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힘들었지만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순조로웠다. 어떤 압박도 아무 문제 없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 선교할 수 있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예수님

을 영접하였다. 또한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단비로 우리를 성령충만하게 해 주셨다. "아멘." 하고 외치던 맑은 눈망울의 형제와 호기심 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른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많은 이야기를 그들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선교구호처럼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우리이지만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것을 믿기에 나는 만났던 영혼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김미숙(집사, 22교구 2지역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13일(월)~10월 22일(수)	22교구 7지역	성대열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30일(목)~11월 7일(금)	6교구 7지역	인상직
10월 30일(목)~11월 7일(금)	8교구 2지역	김 근



축복의 통로

청년1부 팀장으로의 부르심이 있었다. “조장은 하리시면 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팀장을요?” 조장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지만 팀장은 당연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 교만이였다. 부르시는 분도, 세우시는 분도, 도우시는 분도, 이루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난 마치 내가 하는 일인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다. “준비된 자가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쓰임 받는다.”는 말에 도전받고 결국 팀장의 자리를 맡게 되었다. 팀 전체를 바라보는 눈은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과 같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길 같이 나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겠다는 각오로 헌신을 다짐했다.

그렇게 시작한 팀장사역은 힘들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요 축복 그 자체였다. 물론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섬겨 보고자 부단히 애쓰며 노력했다. 그 열심으로 팀원들도 잘 따라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에너지는 고갈되고 말았다.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며 살다가 뒤늦게 돌아온 내가, 수십 년적 교회학교에서 안목받고 말씀 안에서 자란 다른 팀장들과 비교하며 그들의 흉내를 내려나 베풀 수밖에. 메달라서 갈라진 내 심령에 없는 사랑 만들어서 퍼주려나 마음이 쪼려했고 내 마음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주님이 세우신 팀인데 왜 이렇게 버려두세요? 왜 하필 이렇게 못한 자를 세우셔서 이 귀한 팀을 엉망으로 만들게 버려두시나요?’라며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내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줄게. 난 그냥 나만 믿고 맡기기만 하면 돼. 난 내 안에서 편안히 쉬고 내가 주는 은혜를 맡겨 누리렴.” 그말다. 우리 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 팀은 은혜로 세워졌은 물론,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났다. 나의 사랑을 억지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히 흘러가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받는 이’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던 것이다. 그렇게 또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마는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창 12:9)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오히려 나의 약함을 감사한다. 약할 때 감함 되시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 팀을 불신하고 친히 세워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에,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길 기도한다.

박신정(청년1부)

찬양,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노라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잠시 후면 식상해져서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찬양은 부름된 부름수록 오히려 우리의 심령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 찬양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준다. 나의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도, 박자가 조금은 틀려도, 기쁨으로 부르는 이 찬양을 주님은 받아주시리라!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 교회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어린 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한다. 금요찬양집회에는 세대 차이가 없다. 남녀도 없고, 빈부도, 귀천도 없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정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성대를 사용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중한 선물, 찬양의 자리는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준다.

찬양은 꼭조 있는 기도와 한다. 찬양을 하며 그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음미하노라면 어찌 그리도 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해서는, ‘주여!’ 하고 부를 용기도 없이 나왔는데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진다. 찬양은 그대로 나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 올라간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도 난 후에는, 나팔이 울리고 나의 죽어 있는 심령이 다시 은혜로 살아난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계를 모셔올 때, 너무 기쁘게 웃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며 하는 찬양이 어려웠을까? 주님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을 뿐, 사람 앞에서나 차리는 체면이나 명예는 전혀 필요가 없다.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입술과 음성으로 찬양하면 된다. 항상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이 눌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환난이 다쳐와서 두려워 할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찬 300장)

김명성(안수집사, 12교구)

사랑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신앙은 율법에 사로잡혀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바르게 살기를 원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교를 다닐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해도 안 되고 저런 일을 해도 안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내 신앙은 훈련되어 의식과 무의식중에 율법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다. 이런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말씀하셨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내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죄와는 멀어지고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늘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며, 나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부모 형제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다.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 흘러 넘쳐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김금숙(집사, 21교구)

주님이 예비하신 새 생명

동네에 사는 큰딸아이 친구 엄마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 주님을 모르는 자매이기 에 몇 해 전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청지기훈련과 교구 새신자 초청잔치에 초대하였다. 내가 부탁하거나 교회행사에 참석은 하였지만 그 이성은 아니었다. 그래도 내 마음속의 안타까움이 넘쳐 구역예배 시 함께 예배드릴 새신자로 작정하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몇 해 동안 마음이 열리지 않던 자매가 최근 개인과 가정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교구에서 목사님이 구역방향을 하신다고 하여 구역예배 참석을 권면하여 함께 예배를 돌리게 되었다. 집에 돌아오면서 “언니, 오늘 어땠어?” 하고 물었더니 “그냥 그랬어.”라고 하였다. 나는 실망하며 “아직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게 아니었다. “내가 교회 가자고 할까 봐 아닌 착한 거야!”라는 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했다.

지금은 언니 딸이 언니의 허락을 받아 나의 딸과 함께 회교를 다니고 있다. 지난 주에는 언니와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삼으실지 기대가 된다.

조영미(집사, 16교구)

임직자 명단

제41대 장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호일	24	90-648	추병창	10	82-700	최세진	2	95-232
김종기	24	81-389	박광식	6	80-591	류기명	14	82-415
박성명	16	81-171	이상복	8	89-230	저규성	6	83-311
박종율	20	79-159						

(좌에서 우로 연행순)

제21대 안수집사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정신	18	861	서상근	20	2601	권중철	15	86-141
신동수	4	89-1229	백승환	24	94-169	박문선	23	89-1099
이도현	5	90-330	오형식	8	94-421	김종광	14	91-131
최인규	22	92-1265	최현주	13	2002-0286	구승희	16	81-1022
김주현	15	86-783	장상길	2	85-531	백재홍	12	80-797
이연범	7	79-601	홍선기	4	98-331	이현재	3	89-506
전귀환	9	92-1628	유영근	15	91-532	김정배	6	95-8
신현철	10	90-964	이호식	22	88-140	송중석	14	93-211
신현옥	11	79-156	김영희	20	96-64	박대균	10	97-356
박형식	19	99-461						

(좌에서 우로 연행순)

제49대 권사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강경순	15	97-70	강 순	14	79-52	강 옥	1	91-1009
강준자	2	88-233	고옥영	23	97-686	고윤희	1	89-1483
김경숙	2	88-53	김동화	22	89-629	김영선	15	89-746
김세향	16	87-665	김수영	11	413	김영란	3	97-672
김영희	21	83-274	김옥자	17	90-145	김용원	8	85-172
김위자	21	85-931	김유순	24	80-262	김인덕	7	87-833
김정옥	18	89-18	김종수	8	79-182	김형진	2	85-531
남현숙	10	98-640	박경애	24	89-181	박명자	13	95-191
박연옥	12	88-590	박은숙	6	89-1275	박희수	5	96-327
설분식	8	2002-0239	손명민	9	1381	신명주	1	2002-0344
신호화	9	96-450	오영선	10	80-758	왕순화	24	94-169
이경옥	20	82-218	이눔이	20	84-388	이미애	5	84-230
이미주	14	94-1957	이수애	19	92-326	이옥자	13	84-233
이재숙	21	95-680	이정희	7	91-68	이현옥	17	82-405
장보윤	23	89-664	전명식	24	79-446	정미순	16	93-946
정인선	12	81-16	조숙애	19	93-151	조연이	6	82-69
조영희	4	95-594	저영순	12	798	채임숙	18	93-1588
홍점순	14	95-525	황이지	11	91-958	황희조	6	90-527

(좌에서 우로 이름순)

십자가의 길

참된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6세기 당시, 믿음에 대한 무지와 미신으로 가득찬 교회를 개혁교자 시킵튼 종교개혁이 있는 지 5백기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기 저기서 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에 매우 익숙해 있다. 개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기본적으로 개혁은 '지금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바꾼다.'는 의미에 대해서 단순히 제도나 의식을 버리거나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신앙을 개혁하자!"라는 말을 할 때에도 자신의 잘못된 습관,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하자는 의미로 생각한다. '교회를 개혁하자.'는 말을 할 때에도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관습이나 의식 같은 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매우 실증적인 착각이다. 바로 이 착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항상 개혁을 위한 개혁에만! 그저 형식을 지르듯이 개혁을 끝낼 뿐 실제로 개혁되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되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때가 대부분이다. 개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옛 관습이나 의식을 버리고 새롭게 하라 함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관습이나, 나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며 개혁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착된 믿음과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개혁을 원하지만 개혁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떤 교육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지를 배우려 하고, 가르치고, 주장한다. 개혁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구조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들 모두가 주장을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타당할지라도! 또한 그러한 주장들을 모두 수용할지라도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개혁되지 않는다. 조금 달라진 것은 단지 제도와 의식과 생각뿐이고, 달라진 의식과 생각에 의해 다른 형태의 인간, 다른 구조와 교회만 세워진 것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참된 신자, 참된 교회성을 모범적인 신자, 모범적인 교회의 제도와 의식에 맞추어 또 다른 율법과 전통을 세우고 있다.

율창기가 18장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개혁 가운데 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유다의 왕에 오른 히스기야의 개혁이다. 조상 때부터 거룩히 여김이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모세의 놋뿔까지 부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만큼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냐고 유다 백성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스세야 왕이 되자 모든 것은 원상 회복되었다. (왕하 21:2-3) 무엇보다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의 정신과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다. 직접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개혁정신을 교육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개혁되지 전 아니 개혁되지 전보다 더 실망해 타락하였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바꾸고 부수고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인간들이 행하는 개혁의 한계이다.

(다음 호에 계속)

중등3부 아이들을 보내며

또 한 번의 52주가 지나간다. 어색한 표정으로 처음 중등3부 예배실로 올라왔던 아이들은 그새 영과 목이 함께 흘러 커버린 채 고등부 진급을 앞두고 있다. 또래 친구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집에서 쉬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을 때,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성수주일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한심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람을 강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들에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의 모습을 발견한다.

신앙의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중등3부 아이들은 궁금한 것이 많다. 말씀을 보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고민을 하고 답을 찾는다.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항상 말씀이 고프다. 그래서 중등3부 아이들이 진급을 할 때마다 '더 많은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나눌걸……'하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다.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선배들, 동기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바란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무엇보다도 성령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인이 되기를 기도한다.

김선영(교사, 중등3부)

*오늘, 대부분의 교회학교 학생들은 수료 및 진급을 하였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전교본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으로 양육될 것이다. 이들이 십자가의 길로써 완성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모으고 성도님에게 부탁드린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762	서영은	13 청년2부	정재용(24)	1772	지현옥	16 청년1부		1782	안드레아	25 외선부	엘제(25)
1763	손대은	9 고등부	김영림(24)	1773	최민경	14 청년1부	허미자(24)	1783	스캇	25 외선부	엘제(25)
1764	안민성	24 유년부	안영숙(24)	1774	김성현	1 교역자		1784	사바라	25 외선부	
1765	안수현	24 유년부	안영숙(24)	1775	임희정	1 청년2부		1785	김대현	3 청년1부	
1766	조영영	1 교역자		1776	최선희	18 청년1부		1786	김경옥	3 청년2부	김은경(2)
1767	차정애	8 청년1부	김부배(8)	1777	김은식	1 교역자		1787	김선아	10 청년2부	김희철(2)
1768	송재호	1 교역자		1778	김요미	1 청년2부		1788	조한수	21 청년3부	이근호(20)
1769	김현정	1 청년2부		1779	이영민	1 유년부		1789	송수혜	24 청년1부	강 철(24)
1770	이재현	19 청년1부	최민경(21)	1780	안말선	1 교역자		1790	조한성	14 대학부	
1771	김지현	13 청년2부	전영숙(24)	1781	장진옥	1 청년2부					

* 중등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00

결혼

1. 노경민 군(노병남 집사·김정숙 권사의 아들, 12교구)과 이현나 양(이진표 목사·손영숙 사모의 딸, 2교구) 11월 1일(토) 13:00 L.C.I.(엘써이)해당홀 2층
2. 안승택 군(안경진 집사·황영숙 집사의 아들, 10교구)과 전연성 양(전용우 씨·안명자 씨의 딸) 11월 1일(토) 14:30 서면면선 8층 플로넨스홀
3. 홍정현 군(홍정진 씨·윤윤자 씨의 아들과 이현정 양)이은혜 집사·강준자 권사의 딸, 2교구) 11월 1일(토) 16:30 강남목회대평문헌회 1층 아도니스홀

(교육과정 : 3주간, 장소 : 갑철리울)

시 간	11월 9일(주일)
18:15~19:15	제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19:30	제2강 종교회와 선교정책
시 간	11월 16일(주일)
18:15~18:45	제3강 선교지 영적 상황
15:45~19:10	제4강 팀 사역의 성장적 원리
19:10~19:30	제5강 선교 영성교회화

*CMTC 집중훈련: 11월 20일(수요일) 18:15~19:15

2009년 국내전도 및 단기선교 설명회

일 시 : 11월 2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장 소 : 베다니홀
대 상 : 남·녀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회·권사회 임원

11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에배 (장로)					찬양예배 (단신사)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11	2	김열은	박승근	김철환	노광현	이영숙		이명순	김옥희
	9	배석진	임상익	김구형	김장국	조지훈		정길희	김영희
	16	이실로	홍윤범	김종기	김연태	염복희		최광자	임영희
	23	왕기수	안석현	서철경	김종홍	이종식		김숙자	전정희
	30	장승기	전은복	유상태	주재한	신상수		노은경	이연희

새벽기도회 (10/27~11/2)

	10/27 (월)	10/28 (화)	10/29 (수)	10/30 (목)	10/31 (금)	11/1 (토)	11/2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이보신	김준희/정인옥	윤수일/남준호	황진섭/김영모	유재진/선명환	강명구/김정자	강호성/김정희
성 교 본 문	막 8:27-33	골 2:17-22	골 2:23-31	골 2:31-10	골 2:31:11-21	골 2:32:22-35	골 2:33:36-49

예배 달달 (10/29~11/2)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10/29	수요일	말씀의 결실 (눅 8:11-15) 김철규 목사	유원철	장성복	주님의 귀한 말씀은 (호산나 찬양대)
10/30	수요일	생명의 소로 인도하는 도 (마 7:13-14) 정민권 목사	최진철	임홍숙	기쁜 소로 나리니 (성요한 찬양대)
10/31	금요일	김성진 목사	황건섭		예루살렘 찬양대 / 플루트 노연영 / 차복희 / 테너 이병진
11/2	주일 I	드로미에서 (행 10:7-12) 최경찬 목사	강원철	김영은	(예배 전 찬양)
11/2	주일 II	드로미에서 (행 10:7-12) 이희성 목사	하종철	박성득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 소프라노 김승희/거리광림 찬양대 지휘
11/2	주일 III	드로미에서 (행 10:7-12) 김철성 목사	정진호	박성득	성부의 어린 양이 되 / 소프라노 김소연(전/동광학)
11/2	주일 IV	드로미에서 (행 10:7-12) 정종삼 목사	윤수일	김영철	복음의 주님의 사랑과 / 소프라노 김소연(전/동광학)
11/2	주일 V	드로미에서 (행 10:7-12) 유재진 목사	김진수	강종현	주위에 성령 받기 위하여 / / 비올라 이신원(비온 오케스트라) 악장
11/2	주일	요한 6:28-30) 김성관 목사	유원철	이기숙	할렐루야 제2여성찬양단 / 만도린 연주단 / 15교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후 9:00	본 당
	III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융잔업교회	저녁 7:00	본 당
세력기교회	매일 저녁 5:00	본 당

기독교원진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차	저녁 10:30	금요일차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통역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지분		■ 부목사	
노영환 장광남	이훈 서정호 장광남	김종구 홍남기 장광남	이창호 차신득 전종필
김단용 노영환	한승규 장광남	이창호 전종필	이재형 김진호
이영환 장광남	한승규 장광남	이재형 김진호	이재형 김진호
박덕만 서정호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배준식 서정호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박기환 노영환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김영은 노영환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윤석민 노영환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김종선 노영환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전현배 노영환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유상태 노영환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임복식 노영환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김환철 노영환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세영 노영환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김성호 노영환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김종기 노영환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지규성 노영환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이태식 박종관

10월 충현 기도의 창

- ③ 교회의 방패와 성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처소(엡 2:22)들이 되게 하소서.
- ④ 우리들사회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리와 신화 부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몬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위게 하소서.
- ⑥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눅 19:10)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⑦ 1·1·1 전도와 협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접하게 하소서.
- ⑧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에루살렘 전 장막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⑨ 충현의 세대(유지·동산·복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중언 앙무로, 남달리신 권립과 수양관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구분	시간	장소
----	----	----

영 아 부	11 오전 9:00 11 오후 1:00	제2교과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과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과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과관 307호
조 중 부	오전 10:30	제1교과관 407호
조 년 부	오전 10:30	제1교과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제1교과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제1교과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제1교과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과관 4층
대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과관 4층
청년 부	(토) 오후 5:30	제2교과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	----	----

장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년 4부	오후 3:30	배 다 니 홈
소 망 부	오후 12:15	갈 밀 리 홈
사 망 부	오전 11:00	복자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학동) 오후 1:00(학성)	제2교육관 1층
타 가 요	(주) 오세 830 호세 600 (단) 차제 630 호세 600	신교관 1층
사적죽약양육부	오후 12:15	배 다 니 홈
주내외이전선교부	오전 11:00	야 메 뽀
출생이먼이전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제비자여교육부	주간교육	충현교회